

임상병리사 직무교육을 마치고

대한산업보건협회 경기북부산업보건센터 / 김 미 영

올해의 임상병리사 직무교육이 1박 2일(1월 27-28일)의 일정으로 시작되었다. 27일은 생화학자동분석기교육을, 28일은 EIA장비 관련 ECL에 대하여 교육을 받았는데, 첫날은 각 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생화학자동분석기별로 교육을 실시하여 Olympus AU-640은 서울센터에서, Toshiba TBA-120FR은 안산센터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다.

약간의 설레임과 궁금함을 안고 교육 장소인 안산센터로 향했다. 거의 4호선 끝자락인 안산 역에서 집결하여 20분 가량 들어가자 시화공단 안에 자리 잡은 안산센터의 커다란 입간판이 눈에 확 들어왔다. 차에서 내리자 공장 밀집지역이어서 인지 겨울철임에도 불구하고 유기화학 냄새가 심하게 났다. 이날은 그래도 약한 편이라고 하니 대기오염의 심각도를 짐작할 수 있었다.

센터에 들어서자 국장님을 비롯하여 안산센터 직원들이 따뜻한 미소로 맞아 주었다. 센터 내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근로자들이 내원했을 때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각각의 방에 번호를 달았으며, 근로자 대기실도 아늑하게 꾸며져 있고, 화장실 위치와 문의 위치 등 내원 근로자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였다. 전체적인 공간 활용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첫날 오전에는 기기의 operation부분을 교육받았다. TBA-120FR 장비는 2001년도에 구입하여 기기설치와 간단한 기기의 조작과정을 교육받아 사용해온 터라 강사의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기 위하여 모두의 손놀림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operation이란 한마디로서 있는 기기를 사용자가 여러 조건에 맞춰 지시하여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다. 각각의 아이콘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과 정도관리, calibration, 기기 에러코드에 관한 설명 및 조치 방법 등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무심코 쓰고 있는 기기 세정제가 왜 산성과 알칼리로 나뉘어 사용되어지는지 등 비교적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오후에는 기기 maintenance에 대해서 진행되었다. 기기의 유지보수를 얼마나 잘 해주느냐 따라서 기기의 수명과 결과 값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 가장 기본적인 물의 순도 점검을 시작으로(물의 상태가 모든 검사데이터의 1/3을 차지할 만큼 중요) 각각의 기능에 따른 probe의 세정 방법, syringe의 상태 점검 및 교체 방법, syringe를 움직이게 하는 펌프의 상태 점검, cuvette(반응조)의 세척 방법 등 평상시의 점검항목에 대해서 꼼꼼히 점검해 볼 수 있었다.

교육을 마친 후 교육생 모두가 서울센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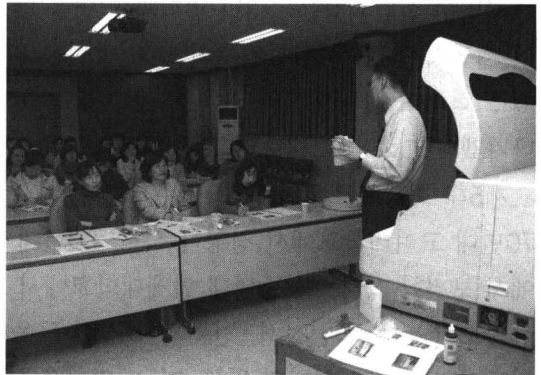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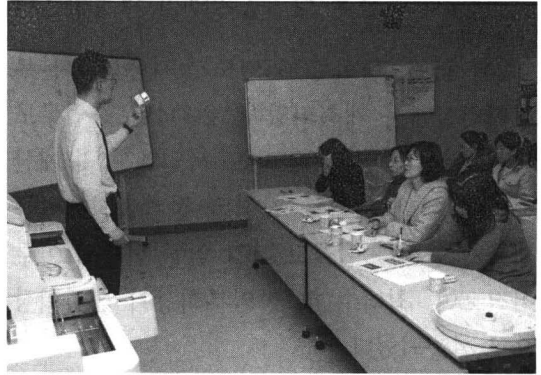
모여서 저녁식사를 했는데 낯선 얼굴도 있었지만 어색함 없이 즐겁고 유쾌한 시간이었다. 서로 다른 센터에서 일은 하지만 같은 일을 해서 일까?

이튿날은 한국 Roche를 방문하여 Elecsys 2010에 관한 교육을 받았으며, ECL검사 원리, 정도관리와 기기 maintenance에 대한 실무 위주로 진행되었다. maintenance 부분에서는 강사의 재치 있는 교육 내용으로 웃음을 자아내는 등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좋았다.

예전에 비해 검사실이 자동화 되어 가고 있으나 자동화 될수록 사람이 편해지기 보다는 기기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지는 것 같다.

광전광도계 하나로 모든 검사가 이루어졌던 때에는 단순한 데이터 관리로 업무가 끝났으며 조작을 잘못하여 오류가 났을 경우 시료 하나에만 영향을 주었지만, 자동화 기기는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소홀히 했다가는 전체 데이터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병리 업무가 단순한 실험을 벗어나 기기에 대한 지식과 관리능력을 갖추고 엔지니어의 역할까지도 감당해야 하는 등 역할이 넓어졌다. 검사 결과는 신뢰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병리사의 기본적인 자질 향상과 전문성을 키우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각 분야의 전문성과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에 가입하고 인증제도 실시 및 체계적인 교육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교육은 실질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교육이었고 실무에 직접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며칠 전에



1월 27~28일까지 임상병리사 직무교육이 실시되었다.

읽었던 책의 한 구절을 마음에 새겨본다.

“실천 없는 지식은 기름 없는 자동차와 같이 아무 소용없다. 실천만이 결과를 낳는다. 지식은 그 자체로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새로운 일을 실천할 수 있는가?”